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아침 6시 10분 전. 알람이 울린다. 실눈을 뜨고 알람을 끈다. 10분 버티기.

6시 거실로 나가 소파에 눕는다. 20분 버티기. 티비를 켜고 뉴스를 듣는다. 눈을 감은 채로.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싶지만 없다.

20분 일어나 소파에 앉는다. 스트레칭을 한다. 10분 버티기

30분 샤워를 하러 들어간다. 그 전에 잠깐 몸무게를 재 본다. 실망이다.

샤워를 끝내고 머리를 완전히 말린다. 지난 주말 지인 소개로 의정부에 있는 미용실에서 염색과 컷을 했다. 여기를 계속 이용할지 판단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머리가 너무 짧다. 전 미용실에서 자꾸 길게 잘라 - 금방 다시 오게 하려는 속셈으로 이해하고 있다. - '짧게'를 강조했다니 정말 짧게 잘랐다. 어제 만난 친구가 '형'이라 놀릴 정도다. 하여간, 염색과 컷 합해 28000원을 받은 착한 미용실을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정성껏 머리를 말리고 출근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거실로 나간다.

7시. 40분의 여유가 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사과를 반 개 먹은 다음 아직 차갑지 않은 찬밥에 김자반을 찍어 몇 숟가락 먹는다. 그래도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배가 편안하니까.

이를 닦고 눈 영양제를 먹는다. 최근에 눈이 자꾸 신경쓰인다. 작은 글씨 읽는 것도 힘들고 자주 아프다. 그래서 생전 처음 - 그동안 영양제는 주로 언니가 사다줬다 - 내 돈 주고 영양제를 샀다.

7시 20분. 아직도 20분의 여유가 있다. 뉴스를 보며 여유를 갖는다. 세월호 참사 소식은 아직도 없다.

작년과 올해 아침은 완전히 대조된다. 작년엔 3학년 담임이라 7시 5분에 나가야 했고 중3짜리 딸아이 아침을 챙겨놓고 깨워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비담임인데다 딸아이가 경남 산청에 있는 대안학교를 가서 완전 여유다.

7시 40분 집을 나선다. 차를 타고 학교로. 8시 5분 전 학교 주차장 도착. 주차를 하고 3층에 있는 인문사회부로 간다. 먼저 출근한 분이 한 분, 곧 이어 두 분, 얼마 후 또 한 분...

머리에 대한 반응은 '정말 짧다'는 것과 '괜찮다'는 것. 전자는 누가 봐도 그렇고, 후자는 믿을 수 없다. 왜냐면 여자들은 함부로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8시 10분에 직원회의가 있으니 1층 시청각실로 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정말 우리 부서 선생님들은 착하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회의에 참석한다. 할 수 없이 나도 참석한 다. 지루한 회의가 끝나고 인쇄실에 들러 지난 주에 맡긴 학습지를 찾아온다.

1,2교시 연달아 수업이다.

1교시 다른 선생님 사정으로 원래 7반인데 8반으로 바뀌었다. 여학생반이다. 인터넷 수능 비문학 독해 과학 분야의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수업이다. 어렵고 재미없다. 교과서 대신 부교재인 ebs 교재를 하기 때문에 준비한 인쇄물을 책이 없는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여학생 반이라 대부분 책이 있다. 미처 못 산 학생 두어 명, 예체능계라서 우리가 하는 B형이 아니라 A형 교재를 산 학생들 몇 명이 학습지를 받는다.

지문 2개 먼저 12분 풀 시간을 준다. 그 전에 손을 드는 학생들이 있다. 다 풀었다는 뜻이다.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풀도록 한다. 다 맞힌 학생들에게 지문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20분 정도 지나 지문 전체 분석을 해 준다. 오답이 많았던 문제를 골라 왜 함정에 빠졌는지 분석을 해 준다. 설명이 끝난 후 검사를 한다. 나오라고 한다. 앓, 아니다 검사를 내일로 미룬다. '5월 12일기 수집 이벤트'를 소개해야 한다. 지난 주에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간디학교 다니는 딸과 친구들이 '환경영화제 관람'을 주제로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우리집에 와 있었다. 주로 저녁을 챙겨주고 재워주는 일인데 정신이 없었다. 오전에 수업을 땡겨서 하고 조퇴했기 때문에 이벤트 소개를 하지 못했다. 5분을 남겨두고 소개를 시작한다. '역사 기록의 주제'가 돼 보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본다. 이상하다. 작년엔 비해 반응이 별로다. 왜지? 작년 애들보다 입시경쟁에 더 찌들어 있나. 아니면 내가 3학년 담임이 아니라 영향력이 적은가. 아니면 두 번째라 긴장감이 떨어져 내 설명에 힘이 덜 들어갔나. 모르겠다. 하여간 좀 반응이 약하다. 걱정이다.

2교시는 9반. 여학생반. 1교시보다는 지문 분석을 조금 더 잘해 준 것 같다. 언제나 그렇듯.

3교시 수업이 없다. 하지만 할 일이 많다.

우선 분회 선생님들과 분회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몇 선생님들에게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를 소개하는 쪽지를 보낸다.

국어과장으로서 할 일도 있다. 세월호 참사로 1학기 예정 수학여행, 수련회가 취소되고 2학기 예정 백일장 행사가 5월 23일로 앞당겨 실시된다. 국어과 선생님들 중 누가 심사를 할 건지 글제는 무엇이 좋을지 조언을 해 달라는 2학년부의 요청이 있었다. 국어과 협조가 필요한 다른 행사까지 역할 분할 계획을 세운 뒤 국어과 선생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쪽지를 보낸다. 덧붙여 글제 추천도 부탁한다. 발빠르고 친절할 선생님 몇 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보내온다. 고맙다.

3교시가 끝나갈 무렵 외출했던 옆자리 K교사가 점심으로 먹을 햄버거를 사갖고 들어온다.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났다면. 놀러온 절친 C와 셋이 테이블에 앉아 세트 메뉴에 딸려온 감자를 먹는다.

4교시 역시 빈 시간. 수요일 수업 준비를 한다. 이제 예술 분야의 글 읽기 차례다. 재밌다. 과학 분야보다 백 배 천 배 재밌다.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위해 일기 수집 이벤트 안내문을 만들어 본다. 완벽하다.

점심시간. K가 사 온 햄버거와 내가 싸 온 파프리카와 자몽, 그리고 K어머니께서 싸 주신 사과를 먹는다.

5교시 남학생 반이다. 1,2교시에 했던 내용이다.

헐, 안 읽고 문제만 푼 친구들이 있다. 대단하다. 지문은 읽은 흔적 없이 깨끗하고 문제에만 흔적이 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왜 답이 1번이야?" "(지문을 가리키며)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 "기억이 안 나요...그냥 해 주시면 안 돼요?"

뭘? 학습지 검사를 받으면 태도 점수 1점을 준다. 10점 만점이라 열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1점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 중 화를 내는 학생이 하나 있다. 간만에 점수에 관심 갖고 참여했는데 그 정성을 생각해서

라도 인정해 주지, 안 해 준다면서 빠져서 들어간다.

남학생반이라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일기 수집 이벤트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 고맙다. 착하게 생긴 한 친구를 인문사회부실로 데리고 온다. 4교시에 만든 안내문 세 장을 주고 남학생 문과반 세 반 게시판에 붙이라고 한다. 심부름값으로 초코바 하나를 준다.

6교시 여학생반. 반응이 없는 반이다. 엄청 노력해야 한두 마디 한다. 무사히 수업을 마친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 즐거운 맘으로 한다.

이제 수업이 다 끝났다. 유일하게 6교시 수업인 날이라 일찍 끝난다. 3시 20분. 담임이 아니니까 종례할 필요가 없고 정말 다 끝났다. 오늘 하루 학교생활을 정리해 본다. 훌륭하다. 무사히 네 시간 수업 다 했고 쉬는 시간에 내가 맡은 업무인 독서동아리, 토론대회 관련해 문의하러 온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고, 처음으로 어느 독서동아리원들에게 작년에 사둔 책을 빌려주기도 했다. 6월 2일 실시 예정인 토론대회에 대한 관심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슬슬 퇴근 준비를 하는데 앗, 갑자기 생각이 났다. 책을 주문해야지. 인터파크에 들어가 그 동안 북카트에 저장해 두었던 책을 주문한다. 한 권은 도연이 책, 두 권은 독서동아리에서 쓸 책, 나머지는 내가 읽을 책이다.

4시. 지금 퇴근할까. 생각할수록 비담임이 좋다. 종례 부담도 없고 문제아 상담할 일도 없고. 2년 연달아 3학년 담임을 하고 나니 비담임의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진다. 작년에는 퇴근 시간도 늦었지만 학교에서는 수업 준비할 시간이 없어 맨날 교재를 들고 집에 갔다.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충분히 빈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책 읽을 시간도 나온다.

퇴근하려다 맞은편 도서관 담당 선생님에게 닥친 일이 신경 쓰여 잠시 기다린다. 학생증, 신용카드, 도서대출증을 겸한 BC카드가 문제다. 카드 업체에서 실수를 하여 도서대출 번호가 잘못 입력되었다.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지금도 업체 담당자와 통화 중인데 답답하다. 통화가 끝나길 기다린다. 나의 의견을 말한다. 정말 기발한 의견인데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번호를 제대로 입력한 순수 도서대출카드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업체에 요구하라는 의견이다.

4시 반 언제나 그렇듯 제일 먼저 가방을 든다. '먼저 퇴근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비장한 각오로 빠뜨린 것이 없나 한번 더 확인한 후 문을 나선다. 돌아오지 않기 위해.

차 시동을 걸려 하는데 누가 차를 막 때린다. 나의 사랑하는 후배들이다. 잠시 수다를 떨고 헤어진다. 동부간선도로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갑자기 아침에 주말농장하는 선생님이 던지고 간 야채가 생각난다. 한 보따리 놓고 가셨는데 열무와 상추 등이 섞여 있어 내가 제대로 먹을 것 같지가 않다. 어떻게 할까, 갑자기 옆동네 M이 생각난다. 동네주민이자 학교 동료인 M은 현재 휴직 중인데 전라도 여인답게 요리를 좀 한다. 그녀라면 충분히 이 흠이 덕지덕지 묻은 다양한 야채를 훌륭하게 소화해 낼 것 같다.

문자를 보낸다. "어디야? 이상한 야채 좀 처리해 줘."

M의 집 앞. 월요시장이 켜졌다. 아직 수영장에 있던 민은 오지 않았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니 저기 어린이 바이킹 앞에 M이 있다. 아이들을 태운다. 야채를 주고 빵티기와 요구르트

2개를 받는다.

집으로 와서 티비를 켜고 도연이가 먹다 남긴 갈비탕과 밥을 데운다.

혼자지만 맛있게 정성을 다해 식사를 한다. B티비로 드라마를 시청하며.

남자들이 수시로 담배를 끊듯 나는 수시로 드라마를 끊는다. 올해도 나는 드라마를 끊기로 결심했다. 특히 돌봐야 할 도연이도 없는 집에서 이제 여가 시간을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과 독서에 바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드라마와 거리를 뒀다. 그런데 그놈의 B티비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스멜스멜 드라마들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있다.

고민이다. 빌린 만화책을 오늘 반납해야 하는데, 아니면 연체료를 내야 하는데 그냥 왔다. 다시 나갈까 말까. 일단 버틴다.

학회 때문에 프라하 간 동생 가족이 맡기고 간 햄토리(햄스터)에게 당근을 잘라 주며 한 조각 나도 먹는다. 그 동안 경계했던 햄스터와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신기해서 친한 친구들 밴드에 글을 올린다.

‘산다는 게 뭔지. 방금 당근 썰어서 작은 거 햄토리 주고 큰 거 내가 먹었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나눠먹다니!!’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댓글에 웃는다. 이왕 쓴 김에 오늘 일기 꼭 써서 이벤트에 참여하라고 부탁한다.

딸 도연에게 문자를 보낸다. 연휴 및 체험학습 신청으로 열흘 정도 같이 있어서 부재가 마음을 허전하게 한다. 보고 싶다. 통화라고 하고 싶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 중일 수도 있으니 문자를 남긴다. ‘가능할 때 전화해’

사실 요즘 매일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기숙사 있는 대안학교를 보내며 딸만이 아니라 엄마도 자립해야 한다는 생각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그럴 수가 없다. 멀쩡한 대낮에 그것도 태평양 한가운데가 아니라 육지 가까운 근해에서 400명 넘는 사람들이 거대여객선 안에 갇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옆에 없으면 불안해지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그 안에는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 300여 명이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내가 만약 인솔교사로 그 배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도연이가 그 배에 있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하며 숨막히는 고통을 느끼며 절망한다. 그리고 핸드폰을 든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같이 근무하는 후배도 요즘 저녁에 운동하러 가지 않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학교 보내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는 불안한 시절이다.

배가 너무 불러서 20분 정도 뛰고 나서 설거지를 한다. 도연을 보낸 토요일부터 안 해서 꽤 쌓여 있다. 어떤 주부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집안일을 한다는데 난 절대 안 그런다. 딸을 멀리 보낸 허전함을 설거지 따위로 잊고 싶지 않다.

이제 책을 읽어야지. 무슨 책을 읽을까. 요며칠 허영만의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라는 만화

책을 읽었고, 그전에는 딸 얼굴만 보았다. 딸이 오기 전에 읽던 책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다 만화를 읽은 목적이 생각난다. 서정록의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를 쉽게 읽기 위해서였다. 칭기즈칸의 삶을 다룬 책이지만 전기문 형식이 아니라 몽골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 형식이라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연히 도연 친구들과 만화방에 갔을 때 칭기즈칸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가 있어 빌려왔던 것이다.

만화를 본 보람이 있다. 만화를 읽기 전보다 장면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다.

갑자기 딸아이가 금요일에 먹고 남긴 치킨이 생각난다. 어찌지. 오늘 안 먹으면 상할 텐데, 냉동실에 넣을까. 아냐 그럼 맛이 떨어져. 본스치킨이데. 아까워.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결국 먹고 만다. 이런! 이런! 이런!!!!

다시 책을 읽는다. 만화책에선 먼저 이복동생이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 할 수 없이 테무친이 이복동생을 죽였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죽였다. 슬프다. 나에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다가 아닌 장면이 나오면 당황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유치한 경향이 있다.

친구에게 전화가 온다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어차피 만화책도 갖다줘야 하니까. 9시 반. 동네에서 친구를 만난다. 비밀스런 사업을 하나 제안한다. 관심이 간다. 비밀이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 '빅맨'을 본다. 보면서 108배를 한다

드라마가 끝나고 컴퓨터를 켜다. 스카이프로 캐나다에 사는 언니와 영상통화를 한다. 좋은 세상이다. 매일 돈 한 푼 안 들이고 언니랑 이렇게 얼굴 마주보며 통화를 하니.

통화를 끝내고 씻는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들고 침대로 간다.

핸드폰은 내일 아침 알람을 위해, 아이패드는 인터넷뉴스를 듣기 위해

불을 끄고 고발뉴스를 들으며 잠을 청한다.